중국산 카페인 가격 "폭등"

인민폐 평가절상 · 품귀현상 따라 … Kg당 14달러선

카페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카페인이 최근 주수입국인 중국 인민폐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함께 품귀현상마저 겹쳐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이 부패척결을 내세운 대대적인 숙정작업을 펼치는 등 정치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카페인 공급현황 (단위 : Kg,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생 산	8,520	2,280	▽73.2
수 입	68,100	66,700	▽2.1
공급계	76,620	68,980	▽10.0

중국 현지의 카페인 수급불균형의 주된 요인은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카페인 생산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의한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5년5월 현재 카페인 수입가격은 Kg당 13.5 14.5달러선으로 94년말 7.5달러에 비해 무려 80 90%정도 급등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품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오는 7월부터는 관세를 5% 새롭게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제3무역을 비롯해 화일약품 및 원풍약품 등 카페인 수입 도매상들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에 밀려 퇴조했던 인디아산으로 다시 수입선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디아산 가격은 Kg 당 16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카페인 수입은 6만6700Kg(45만4000달러)로 93년 6만8100 Kg(47만8500달러)에 비해 마이너스 2.1%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감소는 최근 카페인이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카페인 유해론이 확산되면서 주수요처인 의약 및 식품업계에서 무카페인의 신제품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풍제약이 중국으로부터 카페인을 수입 · 정제한 합성카페인을 의약용으로 소분판매하고 있다.
또 카페인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수입 · 가공한 천연카페인을 코카콜라에 독점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카페인 생산은 2280 Kg으로 93년 8520Kg에 비해 73.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페인은 의약용으로 감기약을 비롯해 중추신경계용약 · 강심제 등에 신경안정제로, 식품용으로는 콜라 등 음료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7/3>